

## 문화



이미란

주원규

송기원

김성범

오윤주

## '신춘문예 열병' 않는 그대에게

광주일보 통해 등단 작가 5명이 들려주는 조언

신춘문예의 계절이 왔다. 매년 이맘때면 '신춘문예 열병'을 앓는 예비문인들이 많이 있다. 밤을 새며 한 자 한 자 써내려가며 작품을 준비하고 당선을 기다리는 심정은 애가 탈 것이다.

그러나 당선의 영광을 안는 주인공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그들은 어떤 욕망과 희망을 품고 해마다 신춘문예에 응모하고, 어떻게 준비했을까? 광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배 작가들의 등단기와 예비 문인들을 위한 조언을 들어봤다.

선배들은 제일 덕으로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강조했다. 신춘문예에 문인의 등용문인만큼 열정없는 호기를 부리거나 솔직 자랑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983년 소설로 당선된 이미란(51·전남대 국문과) 교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문학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것이 세상이다. 혹은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써야한다"면서 "자신이 꼭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긴장감을 주는

구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03년 단편 '같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해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젊은 작가 주원규(35)씨 역시 '열정'을 강조한다. 그는 "매번 쓰는 작품이 독특한 영역을 다른 작품 이어서 철저한 취재와 열정 없이는 감당기 어려운 일이었다"면서 "그런 점에서 신춘문예가 값지다"고 말했다.

또 신춘문예는 낙방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일단 되고 나면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 창작의욕을 돋우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1967년 고등학교 재학 때 일찌감치 시 '불멸의 밤에'로 등단한 송기원(52)씨는 당시 신춘문예는 작가지망생들의 꿈이었고 등단의 유일한 통로였다고 말한다. 등단하면서 혼란스런 청춘의 시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고 작가라는 삶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한다.

소설가로 시인으로 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씨는 "요즘 문학이 빛을 발하고 가난한 사람끼리 얼싸안고 동지애를 느끼던 낭만도 없어져

아쉽다"며 "신춘문예 등단을 꿈꾸는 예비문인들이 정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짚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1년 동화에 당선된 김성범(47)씨와 2007년 단편소설부문에 당선된 오윤주(37·교사)씨는 글쓰기 자세에 대해 말했다.

광주일보에 당선된 그 해 문학동네 장편동화에도 당선되는 영광을 얻었던 김씨는 "시동인 활동을 거쳐 문예창작과 대학원에 진학해 이론을 배운 후 1년간 집중적인 글을 썼다"면서 "이 기간의 노력이 큰 힘이되었다"고 말했다.

철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내기 마련이라는 얘기다.

지난 2007년 서른 다섯의 나이에 '마술극장'이라는 단편으로 등단한 송기원(52)씨는 당시 신춘문예는 작가지망생들의 꿈이었고 등단의 유일한 통로였다고 말한다. 등단하면서 혼란스런 청춘의 시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고 작가라는 삶의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한다.

전업작가의 길도 꿈꾸고 있는 오씨는 등단 후 생각보다 작품을 발표할 기회가 많지 않지만 신춘문예 등단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작품의 양을 늘려가고 있다고 전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하루키의 힘' 日 소설 열풍

판매량 지난해보다 25% 증가

주춤하던 일본문학의 인기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Q84' 열풍 속에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15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초까지 일본소설 판매량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4.9% 증가했다. 지난해 일본소설 판매량은 국내 문학의 약진 속에 전년 대비 11.1% 줄었는데,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올해 1~10월 일본소설 출간 종수는 268종으로, 지난해 318종보다 줄어 출간 종수 대비 판매량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소설이 양적 확대만 있고 질적 확대는 없었다는 평이 많았는데, 올해는 출간 종수가 많지 않은 가운데 대중성과 작품성을 갖춘 작가들이 사랑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일본소설의 선전은 무라카

미 하루키가 5년 만에 펴낸 신작 장편 소설 '1Q84'의 열풍에 가까운 인기에 힘입은 바 크다.

서른 살의 작가 지망생 텐고와 킬리 아오마에의 사랑과 윤리 문제 등을 다룬 '1Q84'는 지난 8월 25일 1권이 출간된 이후 줄곧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유지하며 2개월여 만에 제작 부수 56만 부를 돌파했다.

여기에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X의 현신'과 '백야행'이 영화 개봉 소식에 다시 인기를 얻고, 에쿠니 가오리와 오쿠다 히데오의 신·구간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식어가던 '문학의 일류(日流)'를 되살리는 데 힘을 실었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 11월 예쁜 노래, 어우러진

오늘 '천원의 행복' 공연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매월 첫째주 월요일에 진행하는 '빛고을 천원의 행복' 11월 행사가 16일 오후 7시30분 광주시 동구 총장로 어린왕자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11월 예쁜 노래 그리고 어우러짐'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아시아여성챔버싱어즈 '루스노바'가 가을날에 어울리는 곡들을 선보인다. 또 각종 이벤트도 진행한다. 문의 062-226-2030.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 소프라노 정애련 '행복한 뮤지컬'

19일 유·스퀘어문화관서 '7년만의 독창회'



씨와 재즈뮤지션 강윤숙(피아노), 김성광(더블 데이스), 임민수(드럼)씨가 함께 출연 한다.

서울대를 거쳐 이탈리아 로마 예술아카데미를 졸업한 정씨는 미국 LA 한인문화원 개원 초청연주회 등 13회의 독창회를 개최했으며 협연부다페스트 교향악단 등과 협연한 바 있다.

정씨는 "연주자만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한 청중들도 함께 빛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소프라노 정애련(사진·전남대 음악교육학과 교수)씨가 7년만에 국내에서 독창회를 갖는다. 1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이번 독창회에서는 지금까지 음악회와는 조금 다른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지난 2007년 암식년을 맞아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랜즈 음악대학에서 1년을 보냈던 정씨는 그 때 '뮤지컬'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다. 오랫동안 클래식에만 익숙했던 정씨에게 새롭게 접한 '뮤지컬'은 참 흥미로웠고, 무엇보다 노래하면서 행복했다.

이번 독창회에서는 이 때 느꼈던

행복을 청중들에게도 나눠주기 위해 뮤지컬 넘버를 중심으로 레퍼토리를 짜았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A II I Ask of You', '헬부르의 우산' 중 'I will wait for you'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Tonight', '오즈의 마법사' 중 'Over the Rainbow'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영국 가곡 'A Black Bird Song', 한국 가곡 '청산은 나를 보고', '고향', 영화 '미션'의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노래로 만든 '밸리 판타지'와 거취인의 '포기와 베스' 중 '점머타임' 등을 선보인다.

이번 무대에는 플루티스트 이현경



김한조 작 '군사정부의 만화검열'

## 만화 萬話

시립미술관, 한국만화 100주년 기념전

'공포의 외인구단'의 까치, '발바리의 주역'의 김달호, '불침객'의 구영단 등 1980년대에 밟화된 만화의 주인공들은 왜 모두 백수였을까? 이는 암울했던 시대에 일자리를 찾지 못한 평범한 서민이 꿈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은 내년 1월 31일까지 한국만화 100주년을 맞아 '만화 만화(慢畫 萬話)'전을 연다.

한국에 만화가 도입된 지 1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동명 전시의 광주순회전이다. 지난 1909년 대만민보에 실린 이도영의 만평을 한국 최초의 만화로 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 최초의 만화가 이도영부터 최근 유행하는 인터넷만화 웹툰까지 한국만화 100년의 역사

를 100점의 만화원고를 통해 소개한다.

또 김경호, 권용득, 하민석, 배종민, 김한조, 고영일, 김수박, 최인선, 장경섭, 변병준, 차민씨 등 17명의 작가들이 옛 만화를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 17점을 함께 선보인다.

권용득씨는 1942년부터 일본과 서울에서 '코주부' '풀풀이의 모험' 등을 잡지에 연재했던 권용득의 만화를 재조명한 작품 '남북을 모두 겪은 만화가 김용환'을 선보인다. 또 김한조씨의 '군사정부의 만화검열'은 김산호의 만화주인공 '라이파이'를 소재로 5·16군사정권에서 행해졌던 만화검열의 어두운 역사를 기록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고룡정보교생들 '희망의 봇질' ▶29일까지 명지미술관 '나눔의 빛'전

명지미술관은 16~29일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고룡정보산업학교(교장 김장수·옛 소년원) 원생들과 함께 '나눔의 빛'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명지미술관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인 '드림캐쳐(Dream catcher)'에 참여했던 이 학교 아이들이 미술치료사 류정미씨의 지도를 받아 창작한 작품을 모았다.

업서 크기의 조그만 학판에 10여명의 학생들이 각자 그림을 그린 뒤 학판을 이어 붙여 거대한 숲의 모습을 완성한 '우리들의 이야기'와 자기의 얼굴을 점토로 빛은 '내가 만들어가는 얼굴' 등의 작품이 눈에 띈다. 또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과 고향 블록을 서정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에서도 아이들의 꿈이 느껴진다. 문의 061-383-257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우리들의 이야기'

## 영 / 화 / 안 / 내

### 메 가 박 스

1관 2012 (12세)	최고급관
2관 청담보살 (15세)	
3관 집행자 (18세)/굿모닝프레지던트 (전체)	
4관 청담보살 (15세)	
5관 2012 (12세)	
6관 청담보살 (15세)	
7관 시간여행자의 아내 (12세)/펜트하우스코끼리 (18세)	
8관 2012 (12세)	
9관 2012 (12세)	

\* 어프유 주자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관별 고지에 반값):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그들이 걸고한 마지막 날이온다!  
[www.megabox.co.kr](http://www.megabox.co.kr)  
구.원면역국사거리 ☎ 1544-0600

### 콜롬버스시네마

1관 굿모닝프레지던트 (전체)
2관 킬 미 (18세)/펜트하우스코끼리 (18세)
3관 2012 (12세)
4관 2012 (12세)
5관 바스터즈: 거친녀석들 (18세)/굿모닝프레지던트 (전체)
6관 청담보살 (15세)
7관 집행자 (18세)
8관 2012 (12세)
9관 청담보살 (15세)
10관 2012 (12세)

한트시네마 영화사장 ●홈페이지: [www.joycbc.com/](http://www.joycbc.com/) 1588-7941  
상담원면결 병행→(1년 or 2년)→0번  
그들이 걸고한 마지막 날이온다!  
[www.joycbc.com/](http://www.joycbc.com/)  
영화보기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http://www.megabox.co.kr)  
구.원면역국사거리 ☎ 1544-0600

### 하 미 시 네 마

1관 바스터즈: 거친녀석들 (18세)

<tbl\_r cells="1" ix="1" max